



##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원불교 종단과 ‘자살예방 협력회의’ 개최

- 원불교 창시일인 대각개교절(4.28) 계기, 원불교 관계자와 자살예방 협력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논의

-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, 이하 ‘추진본부’)는 4월 17일(금),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회의실에서 원불교 종단 관계자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원불교 창시일인 ‘대각개교절\*’(4월 28일)을 계기로 경축법회, 각종 사회봉사 및 종교 문화행사에서 원불교 교무(성직자)와 교도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활동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.
  - \*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원불교를 창시한 날(양력 1916.4.28.)로, 대각개교절 전후로 특별법회, 경축행사, 봉사활동 등을 개최
- 추진본부는 자살예방 협력과 관련하여, 원불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생명존중 법회안내문(안)을 지역 교구 등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, ‘자살예방 상담전화 109’의 홍보와 원음방송·원불교신문 등을 통해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 아울러 지역교구·교당이 지자체의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원불교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- 원불교 관계자는 원불교의 핵심 사상인 “사은(四恩)\*과 상생(相生)\*\*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”라고 화답하며,

○ “원불교는 전국 130만 교도와 15개 교구 및 650여 교당을 이르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, 전국 교구와 교당이 참여하여 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종단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\*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네가지 필수적인 관계(천지은, 부모은, 동포은, 법률은)를 통해 자기 존엄성과 감사함을 회복

\*\*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동반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일깨움

□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원불교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고, “원불교 최대 경축 행사인 ‘대각개교절’을 계기로 생명 존중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	이효식 (044-200-6369)
	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담당자	사무관	김봉주 (044-200-6387)

